



# “올해 그리스 음악·‘아리랑’에 도전해요”

음악프로 ‘난장’ 국악코디 활동  
그룹 ‘루트머지’ 결성 7인조로 성장  
앨범 3장 발매...작년 공연만 50회

요즘엔, 휴대폰 연결음을 듣다보면 상대방의 특성이 조금은 눈에 잡힌다. 홍윤진(35)씨의 연결음은 영롱한 가야금 연주곡. 홍씨가 리더로 활동하는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의 ‘별무인’이다.

초등학교 5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처음 12줄 가야금의 매력에 빠진 홍씨는 대학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광주가야금연주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활동, TV 음악프로그램의 음악감독과 국악코디도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광주에고를 거쳐 전남대 국악과에 들어간 홍씨는 대학교 3학년 때 ‘외도’를 했다. 스튜디디스에 관심이 많아 관련 학원을 찾았고, 우연히 나레이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것. 일에 흥미를 느껴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기획 분야에서 일을 했다. 휴지기는 오히려 가야금에 대한 열정을 키워줬다. 2000년, 3학년으로 재입학 한 홍씨는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마음에 맞는 동료들과 가야금 그룹 ‘그린나래’도 만들어 활동하고, 국악 그룹 ‘도드리’에도 10년간 참여했다.

홍씨에게 음악의 신세계를 알려준 것은 MBC 음악프로그램 ‘난장’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난장의 국악코디네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홍씨는 ‘난장’을 통해 음악의 무궁무진함을 느꼈고,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뛰어 들 수 있었다.

“가야금만 알았던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난장이었죠. 콘트라베이스, 기타 등 다양한 악기들과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게 즐거웠고, 서로 연주하면서 거기서 제3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주는 행복은 무한해요. ‘존 로스’라는 일본 밴드와 협연한 적이 있었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함께 연주하며 무언가 통하는 느낌이 들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대단했어요.”

현재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는 ‘루트머지’다. 지난 2008년 가야금, 콘트라 베이스, 건반 등 3명으로 출발한 루트머지는 지금 25현 가야금을 맡고 있는 홍씨를 비롯해, 해금(박현정), 장구(김종일), 건반(박수지), 콘트라베이스(차유창), 드럼(황성훈), 보컬(박혜진)이 어우러진 7인조 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 한해만 중국 공연 등 50여회가 넘는 연주회를 진행했고, 지역 연주 단체로는 드물게 정규앨범 1장을 포함, 모두 3장의 음반도 내놓았다.

그녀는 해마다 개인 독주회도 빼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첫번째 독주회에서는 산조와 정악 등 전통음악으로 레퍼토리를 꾸렸고, 이후 연주회에서는 민요를 재해석하기도 했다.

올해 그녀의 도전은 ‘그리스 음악’과 ‘아리랑’이다. 4번째 개인독주회의 레퍼토리가 그리스 음악의 재해석이다. 그리스의 대표적 음악가인 미키스와 마노스의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주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요즘 그리스 음악에 푹 빠져 있는데 그리스 음악의 정서와 우리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가야금으로 들려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는 중이죠. 부주카라



고 기타 비슷한 전통악기가 있는데 주변의 기타리스트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루트머지’의 올해 키워드는 ‘아리랑’입니다. 전통민요 ‘아리랑’을 록과 접목시키는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7월 정기공연을 위해 지난 주부터 연습을 시작했네요.

마침 광주에서 세계아리랑축전도 열린다고 하고, 뭔가 기대되는 부분이 많아요. 2년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루트머지’가 독일과 호주 월드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적극 어필하는 일도 계속 해야죠.”

홍씨는 지난해 말부터 섭외, 구성, 음악선정 등의 일을 담당하는 MBC ‘우리가락 우리마당’의 음악감독으로 일을 시작했다. 또 현장 공연도 중요하지만 깊이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터라 국악 분야로 박사 과정을 밟을지, 아니면 실용음악쪽을 체계적으로 더 공부해 볼지 고민 중이다.

“장르나 악기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결합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개척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죠. 음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루트머지’ 동료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죠. 함께 어우러지니 음악도 더욱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욕심같지만 이른바 퓨전음악 부분에서는 일인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웃음).”

그녀의 음악활동의 핵심은 ‘자유로움’과 ‘무한한 확장’이다. 정해진 틀 없이 음악하는 이들과 자유롭게 결합하고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그 ‘음악’들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그녀가 음악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글=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다양한 레퍼토리 해마다 독주회

“음악의 무한한 확장·자유에 희열”

국악·실용음악 체계적 공부 시도



‘루트머지’ 공연 모습

### ‘홍윤진’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 교감하고 각인되고... 가야금 ‘너는 내 운명’

▲‘물망초발심(勿忘初發心)’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물망초의 꽃말과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말자’는 성어 그대로의 뜻을 합한 홍윤진의 키워드.

다뉴브 지방의 애뜻한 사랑을 담고 있는 꽃 ‘물망초’를 어릴적 부터 좋아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꽃을 꺾으려 강에 들어갔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인에게 꽃을 안기며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그래서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그 애절한이 소녀적 내 감성을 자극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가야금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마음에 되뇌이던 말 처음처럼이 합해진 듯 한 이 한자성어를 만났을 때 나를 위한 키워드 같이 힘이 들때면 되뇌이고 떠올리는 말이다.

내 생의 마지막 할라에도 ‘나를 잊지 마세요’라며 가야금을 연주하고 싶다. 그리고 가야금을 어쩔 수 없이 놓아야만 하는 그 순간에도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나의 단어. ‘물망초발심’

▲가야금  
너무 식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운명적인 만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으로 가야금은 내게 왔다. 그리고 가야금은 내가 무조건 연주해야 하는 그 무엇이었다. 지금까지 내 존재의 많은 부분을 밝혀주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일지도 모르는 가야금이 나의 첫 번째 키워드이다.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이들. 언제나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가족, 영원한 선생님, 인생의 등불과 나침반이 되어주고 홍윤진의 음악세계를 넓혀주신 고마운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음악을 사랑해주실 많은 ‘사람들’이 홍윤진의 두 번째 키워드다.

- ▲홍윤진은
- 1977년 생
  - 광주예고 졸업
  - 전남대학교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사) 최옥삼류가야금산조보존회 회원
  - 광주가야금 연주단 단원
  - MBC 문화콘서트 ‘난장’ 국악코디네이터
  -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음악감독
  -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리더



(5) 가야금 연주자 홍윤진

## 영암효요양병원

###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진료과목**

- + 내과/외과/한방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진료 대상자**

- + 양-한방 외래 및 입원치료 (협진)
- + 대학병원 및 3차 의료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 전문 간호인력 및 간병사의 24시간 간호 처치 제공
- +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를 위한 집중 치료실 운영
- + 뇌졸중·치매 노인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 서비스
- + 전문요양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료 대상자**

- + 근골격계질환자 편마비, 사지마비
- + 호흡기계질환자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 + 뇌혈관질환자 뇌졸중(중풍), 파킨슨, 치매
- + 각종 암 환자 말기암, 호스피스
- + 기타

**찾아오시는길**

영암효요양병원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덕진리 308번지  
전화 (061)471-6888~9 팩스 (061)471-6890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침계리 841-14번지  
전화 (061)542-3004~5 팩스 (061)542-3005